필승조 꿈꾸는 황인준 "홀드 많이 쌓고 싶어"

올해 첫 1군 무대…"내년, 성장의 해로 삼을 것"

"내년에는 성장의 해로 삼겠다".

KIA 타이거즈 우완투수 황인준(27)이 2019시즌 모토를 성장으로 정했다. 황인준은 2015시즌 2차 5라운드에 지명을 받아 8월 군에 입대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17년 제대했고 올해 처음으로 1군 무대에 올라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37경기에 등판해 3승1패1홀드, 평균자책점 4.96의 성적을 남겼다.

데뷔 시즌에서 우등성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불펜에서 중요한 활약을 했고 좋은 평가도 받았다. 6월 12일 SK와의 광주경기에서는 선발 헥터 노에시가 장염으로 결장하자 갑작스럽게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황인준의 이름을 알린 경기였다.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만난 황인준은 "신인때 2군에서 열심히 던졌는데 허리가 아팠다. 정회열 2군 감독님의 조언을 받아 그 해 입대해 작년 8월 제대했다. 경찰청이나 상무에 입대한 동기들에 비해 보여준 것이 없었다. 2018시즌은 확실히 보여주자고 생각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올해의 수확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37경기에서 4점대 방어율을 기록했는데 올해의 수확은 1군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시즌 초반은 2군에서 던졌지만 1군에 올라와 던져보니 많이 달랐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점은 투피치였다. 그는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로 시즌을 보냈다. 후반기에서 힘이 떨어지니 맞고 점수도 많이 주었다. 제구력을 확실하게 가다듬고 직구에 힘을 붙여야 한다. 최고 144까지 나왔는데 스피드보다는 공끝에 힘을 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스피드에 욕심부리니 힘만 들어가고 잘 안되더라"라며 웃었다.

이어 "새로운 커브와 포크볼을 연습하고 있다. 던져보니 괜찮더라. 포수들도 좋다고 평가해주어 많이 연습했다. 슬라이더는 대학교에서 배웠는데 볼카운트가 몰리면 직구보다는 슬라이더가 던지기 편했다. 커터 처럼 짧게 떨어지거나 확 떨어지기도 한다. 슬라이더의 감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준은 볼넷이 적은 편이다. 9이닝당 2개 정도이다. "1군의 부름을 받고 올라오면서 볼넷만 주지 말자고 생각하고 던졌다. 원래 입대 전에는 볼넷이 많았다. 볼볼볼 보다는 맞더라도 한가운데로 던져주지는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쉽게 맞지 않더라"라고 밝혔다.

내년의 모토는 성장. 그는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야 한다. 올해는 패전처리로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잘해서 필승조에 있겠다. 몸이 무거워 움직임이 둔해졌다. 살도 빼겠다. 볼넷을 적게 주고 홀드를 많이 쌓고 싶다. 선발욕심도 있지만 어떤 곳이든 자신감있게 던지고 성장의 해로 삼겠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FA 최대어 양의지 "어느 팀이든 가치 인정해 준다면"

2010년부터 1군 무대 활약…20홈런 이상 4번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포수 양의지(31)가 "어느 팀이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수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이는 양의지는 명실공히 올 겨울 FA 시장의 최대어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활약한 양의지가 20홈런을 넘긴 시즌은 4번이나 된다. 4번이나 시즌 타율 3할을 넘겼다.

올해에도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8(439타수 157안타) 23홈런 77타점 6도루 84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여기에 출루율 0.427, 장타율 0.585를 기록했다. 타율 2위, 출루율 2위, OPS(출루율+장타율) 1.012로 4위를 차지했다.

수비에서도 든든한 안방마님의 면모를 한껏 과시했다. 안정적인 블로킹과 투수 리드를 선보였다. 도루저지율도 37.8%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1위다. 젊은 투수들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워낙 최대어로 평가받는 탓에 연일 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다. 두산은 양의지 잔류를 위해 노력 중이다. NC 다이노스도 양의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양의지는 "에이전트에 모두 맡겨놔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좋은 대우를 해주는 팀에 가는 것 아니겠나"며 "어느 팀이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되기는 한다.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사가 있더라"며 "이렇게 관심을 받는 선수가 됐으니 거기에 맞게 내년에 잘하는 거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운동도 일찍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몸값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양의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봐야 와닿는 것 아니겠나. 내년 시즌이 중요하니 지금 치료,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의지는 계약과 관련해 계속 묻자 "정말 에이전트에게 일임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맡기고 편안하게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로도 꼽혔던 양의지는 팀 동료 김재환에 MVP를 내줬다.

양의지는 "2인자는 말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타율 1위를 했다면 아쉬웠을텐데 2위를 해서 아쉽지 않다. 올해 부상없이 풀타임을 소화한 것에 만족한다"며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두산 허경민, ADT캡스플레이어 대상

수비율 98.73% 기록 3루수 · 전문가 부문서도 1위

두산 베어스의 허경민이 4일 'ADT캡스플레이어 2018' 시상식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됐다.

2018시즌 ADT캡스수비율 98.73%를 기록하며 3루수 부문 1위에 오른 허경민은 전문가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ADT캡스플레이어 2018'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최고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은 허경민은 올 시즌 타격에서도 커리어하이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프로 데뷔 이후에도 꾸준히 리그 최정상급 수비로 안정감을 보여준 허경민은 마침내 국내 유일 수비시상식인 'ADT캡스플레이어 2018'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군사훈련 중인 박해민을 제외한 포지션별 1위 선수 모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비수들과 120여명의 야구팬이 함께했다.

ADT캡스수비율 포지션별 1위로는 1루수 두산 오재일, 2루수 KIA 안치홍, 3루수 두산 허경민 , 유격수 KIA 김선빈이 내야수 부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야수 부문에는 'ADT캡스플레이어 2017' 대상 수상자인 중견수 삼성 박해민(101.45%)을 비롯해 좌익수 삼성 김헌곤, 우익수 롯데 손아섭이 선정됐다. 투·포수 부문에서는 NC 이재학, 두산 양의지가 나란히 포지션별 베스트 선수로 뽑혔다.

한편, 2013년 이종욱을 시작으로 2014년 채태인, 2015년 오지환, 2016년 김재호, 2017년 박해민이 ADT캡스플레이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뉴시스